

## “음악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산재노동자 위로 음악회

- 음악을 통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 함께 만드는 진짜 희망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29일 공단 대구병원에서 산재노동자 위로 음악회(부제: 함께 만드는 진짜 희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산업재해로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프닝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치료와 재활, 일상 복귀까지의 과정을 담은 AI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특별무대와 팝페라, 대중가수 공연 등이 이어져 현장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특히 이번 공연의 특별무대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해 온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회복과 복귀를 함께 응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산재노동자는 “치료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오늘 음악회를 통해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며, “같이 치료받는 분들과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가 산재노동자 여러분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과 다시 나아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은 물론 치료·재활·직업복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책임지며,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상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악회 초청장 및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이미지

담당 부서	의료사업본부 의료계획부	책임자	부 장	최재혁 (052-704-7501)
		담당자	과 장	배정민 (052-704-7502)



